

셰익스피어의 기대를 뛰어넘은 새로운 고전 탄생

댄스 뮤지컬 <겨울이야기>



대중에게 다가서고, 사랑받는 현대무용의 성공적 모델 창조

문예진흥원(원장 현기영) 예술극장은 2003년도 기획공연 프로그램으로 댄스 뮤지컬 <겨울이야기>를 최청자 뿔마루무용단과 함께 개최한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댄스 뮤지컬이라는 무대예술 양식을 소개하는 동 작품을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여 큰 호응을 받았던 데 힘입어, 올해에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세계적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받돋움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올해로 창단 23주년을 맞은 국내 프로무용단의 선두주자, 최청자 뿔마루무용단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셰익스피어의 <The Winter's Tale>이라는 원작의 우수성과 무용·음악·노래·연극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출(이종훈)의 실험성, 그리고 파격적인 무대 사용이 가능한 예술극장 대극장이라는 공연장의 특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지난해보다 더욱 완성도 높은 관람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댄스 뮤지컬 <겨울이야기>는 '대중에게 다가서고 사랑받는 춤'이라는 21세기 현대무용의 지향점에 성공적인 지름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음악의 감동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는 아름다운 드라마

이 공연에는 라이브 음악과 전문가수를 통한 노래가 사용되어 춤과 드라마뿐 아니라 노래와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적 공연 양식인 '댄스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성격을 확실히 부각시켜 준다. 이는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 문화와 화려한 공연 양식에 익숙해진 대중 관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시킨 현대무용의 놀라운 변신을 경험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친구인 이웃 나라 폴란드 왕에 대한 질투와 아내를 향한 불신에 사로잡힌 리온티즈 왕과 비운에 처한 왕비 허마이어니, 그리고 이들의 2세대의 사랑을 통한 회개와 화해 속에서 슬픔과 비운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지혜"를 줄거리로 하는 이번 공연 작품 댄스 뮤지컬 <겨울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따뜻한 결말로 연말 훈훈한 정을 더해 주는 공연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 ◆ 공연일시 : 2003년 12월 23~25일 (23일 오후 7시 / 24~25일 오후 4시, 7시)
- ◆ 공연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 ◆ 공연문의 : 7604-639, 640(예술극장) / 2263-4680(공연기획 MCT)
- ◆ 공연예매 : 2263-4680(공연기획 MCT) / 1588-7890(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2,000원
- ♥ 사랑티켓 참가작품 (사랑티켓 홈페이지 www.artsbank.or.kr에서 예매 가능)

동양적인 상상, 용의 신화를 찾아...

〈아기 龍 미르〉



문예진흥원과 극단 민들레는 2002년과 2003년도에 공동 제작으로 선보여 뛰어난 흥행성적을 기록했던 〈마당을 나온 암탉〉에 이어, 2004년에는 관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신작 〈아기 용 미르〉를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어린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용의 신화'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인들이 과학의 눈으로 그려낸 공룡을 부각시키면서 용에 대한 그리움이 공룡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내외 어린이극의 명가(名家)로 알려진 '극단 민들레'가 용을 무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동양적인 신화를 들려주고 또 동양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며 세계로 향하는 넓은 가슴을 전해 주려 함이다. 연출가 송인현이 직접 써낸 이번 작품은 2003년 12월에 그림동화책으로 출간된다.

이 작품은 연못에 떨어진 겁쟁이 아기용이 연못 식구들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깨닫는 과정을 그려낸다. 아기용이 벌을 받고 쫓겨난 연못은 우리의 생태와 환경을 담아내고 황소개구리나 베스, 블루길의 침입은 무력이나 무분별한 외래 문명의 침략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간단한 줄거리지만 관객은 작품이 담고 있는 은유와 상징을 자신의 경험과 상상,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물체마임극과 우리 전통극을 활용한 관객의 상상력 동원

물체마임극은 '움직임(몸짓) 언어'에 대한 도전이다. 이미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선보인 움직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좀더 과감하게 생략하고 확대를 하였다. 그리고 농부의 옷을 입을 쏘가리나 전투복을 입은 황소개구리, 청바지를 입은 블루길과 베스는 또 다른 연극적 상상을 자극하게 만들 것이다. 해금과 가야금이 전자악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특수한 음향으로 처리되고, 로큰롤이나 뮤지컬곡 등의 음악도 접하게 된다. 관객들은 극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에 동참하게 된다. 공연 이외에도 아이들이 사포 조각에 직접 용을 그려서 만드는 '조각그림으로 병풍 만들기'나 '물고기 흉내 내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공연과 체험학습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 공연일시 : 2004년 1월 8일~2월 1일
(매일 오후 2시, 4시 / 월요일 · 1월 21일 공연 생략)
- ◆ 공연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 ◆ 공연문의 : 760-4640(문예진흥원 예술극장)
- ◆ 작·연출 : 송인현

- ◆ 공연단체 : 극단 민들레
(출연 · 손경원, 박정용, 김지선, 김기상, 변재희, 윤상일, 김태윤 외)
- ♥ 사랑티켓 참가작품
(사랑티켓 홈페이지 www.artsbank.or.kr에서 예매 가능)

2003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대표작가초대전

신학철 - 우리가 만든 거대한 像



〈한국현대사 - 갑순이와 갑돌이〉 부분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의 대표작가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유의미한 궤적을 보여주었으나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작가를 초대하여 그간의 역작을 조망해 보는 전시이다.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표작가전에는 〈한국근현대사〉 연작으로 알려져 있는 신학철 선생이 초대되었다. 신학철 선생은 역대 어느 작가보다도 당대 현실의 역사적 국면들을 예리한 시선과 넘치는 열정으로 포착해 온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특히 이번 전시는 현대 한국의 사회사와 미술을 보다 긴밀하게 연관시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91년 학교재에서 열린 두번째 개인전 이후 12년 만에 보게 되는 이번 전시는 각처에 소장되어 있던 작품 100여 점이 망라되는 회고전 성격을 갖는다. 이 전시에는 역사적 사건을 ‘충격과 감동’으로 형상화하여 작가 신학철을 세상에 널리 알린 〈한국근현대사〉 연작뿐 아니라, 1960년대 대학 시절의 작품에서 2003년 현재의 사회비판적 작업까지, 연대기적으로 주요한 작품들이 일제히 출품된다. 특히 초기 콜라주 및 오브제 작업, 조각 작품과 복원된 설치 작품 그리고 〈한국근대사 4〉 등 어렵게 찾아낸 몇몇 그림은 그의 40여 년 화력을 되짚어보는 회고전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작품이다.

1980년 제작한 콜라주 작품에서 그 제목을 빌려온 이번 전시 〈우리가 만든 거대한 像〉은 마로니에미술관 전관에서 열리며, 각 전시장별로 특화된 전시 구성을 보여준다. 우선 마로니에미술관의 제2전시장은 신학철의 작품을 연대별·매체별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혈기왕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학 시절의 〈자화상〉(1966)부터 작가가 〈오사마 빈라덴〉(2003)을 대신하는 현재의 모습까지를 단번에 추적할 수 있다. 연대별로는 1970년대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 활동시 제작한 오브제 작업과 ‘서울 방법전’에 출품한 콜라주 작업, 그리고 1980년대의 〈한국근대사〉와 〈한국현대사〉 연작에 이어 1990년대의 계층 문제를 다

룬 작품에서 최근의 번두리 풍경과 이라크전을 소재로 한 작업까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매체상으로는 오브제와 콜라주, 설치, 포토몽타주, 회화 작품을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기법적인 변화과정도 알아볼 수 있게 전시된다.

제1전시장은 신학철 선생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해서 압축적으로 구현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한국현대사 - 갑순이와 갑돌이〉(2002)를 도해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20여 미터에 이르는 이 거대한 기념비적 작품은 시골에서 상경한 갑순이와 갑돌이, 곧 우리 현대사의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사건들 그리고 거대 도시로 성장해 가는 서울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구성한 일종의 서민사에 해당한다. 제1전시장은 바로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상, 〈한국현대사 - 갑순이와 갑돌이〉의 구성요소와 제작방식을 일러스트레이트하는 공간이다. 신학철의 작품을 1차 텍스트로 삼는 인포메이션 디자인이 시도되는 것이다. 우선 120호의 화폭 16점으로 구성된 거대한 본 작품이 설치되고, 그 맞은편에는 이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작가가 차용한 여러 이미지와 실물 자료들이 배치되는 아트워크가 전시된다. 거기서 우리는 신문 보도사진과 잡지 표지들, 광고 전단, 주변 인물의 스냅 사진들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덱스로 찾아볼 수 있다. 또 그림 전체의 배경 그림과 본 작품 속으로 몽타주된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함께 전시됨으로써 우리는 이 작품의 까다롭고도 지난한 제작 프로세스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다.

- ◆ 전시기간 : 2003년 11월 21일~12월 21일
- ◆ 관람시간 : 오전 11시~오후 8시 (전시기간 중 무휴)
- ◆ 전시장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1, 2전시장, 소갤러리
- ◆ 체험학습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 전시설명 :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2시, 6시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한다”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하는 범문화예술계 공동 기자회견이 11월 25일 바탕골 소극장에서 열렸다.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대학로포럼, 민족문학작가회의, ITI 한국본부 등 29개 문화예술단체가 참가한 사상 유례없는 행사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따른 문화예술계 연합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한다”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발전을 담아 내기에는 30년간의 틀이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문화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회자의 설명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하였다.



2004년 찾아가는 예술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예술 접촉기회가 많지 않거나 문화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도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업을 지원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 추진 계획

- 가. 사업기간 : 2004. 1. 1~12. 31
- 나. 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예술인, 문화시설의 운영자, 기획자 개인(예술기획사 포함)
- 다. 지원 대상 사업 : 본 사업의 취지와 지원 목표인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부합되는 모든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전통) 및 복합 장르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 사업을 중점으로 함
 - 중·소도시, 농촌, 도서벽지 등 문화소의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하는 사업으로 예술성과 문화적 파급효과가 검증된 사업(기 발표·전시·개최되어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
 - 단, 서울 및 15개 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발표 공간을 벗어나 지하철역, 공원, 아파트단지, 광장 등 대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사업 지원 가능
 - 중앙 혹은 지역에서 기 개최된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활동 등의 지역 혹은 타 중·소도시 및 군·면 단위 소외지역 중심의 순회행사
 - 중·소도시의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문학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순회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문화환경 여건에 부합되는 사업
 - 공연 및 전시 장소 확정 등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함

*향수권 확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순회지역은 5개 이상 지역을 순회함을 원칙으로 함

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에 기 신청한 사업 중 아래 사업
 -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문화예술교육(강좌) 순회 활동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체험지원’이나 소외계층(장애인, 청소년보호시설,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정, 근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순회 활동을 하는 ‘함께하는문화복지지원’에 해당되는 사업

*지원신청 접수 마감된 2004년도 정례 지원사업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f.or.kr) 하단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안내’ 참조

- 2003년도 하반기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

마. 지원금 지원 규모 : 집중지원 차원에서 우수사업을 엄선하여 신청사업 총 소요예산의 50% 내외를 지원하되, 순회지역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2. 신청 및 접수

- 가. 신청서식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양식은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은 홈페이지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나. 첨부 제출 자료

- 순회사업 계획 관련 각종 시각자료
- 기 발표된 바 있는 실적자료 : 전시도록, 공연 팸플릿, 공연기록 테이프 등
- 전시의 경우 시각자료를 CD-ROM으로 제작 제출 요망
- 기타 최근 2년 내 대표적 활동실적 자료 등

다.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3. 11. 24(월)~12. 23(화) (1개월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12. 23. 17:00 마감, 단 우편접수의 경우 12. 23 소인까지 유효)
- 문의 및 접수처
 - 문학 및 미술 : 문학미술팀(7604-560~562)
 - 공연(음악, 연극, 무용) 및 전통 : 공연예술팀(7604-580~582)
 - 기타 복합장르 : 총괄협력팀(7604-551~553)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우편번호 110-766)

3. 심의 예정 일자

- 1차 : 2004. 1. 1 (서면 심의)
- 2차 : 2004. 1. 15 (인터뷰 심의)